

LCD, 세계 TV시장 “독주”

2/4분기 점유율 70% 돌파 ... CRT는 30%대 붕괴

세계 TV시장이 LCD(Liquid Crystal Display)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.

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09년 2/4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LCD와 PDP(Plasma Display Panel)의 점유율은 각각 67.3%와 6.9%로 전체 TV 시장의 70%를 넘어섰다.

분기별 점유율에서 LCD TV와 PDP TV 등 평판 TV 점유율이 70%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.

반면, 브라운관(CRT) TV 점유율은 25.7%로 집계돼 분기별 점유율로는 처음으로 30% 아래로 떨어졌다.

2008년 1/4분기만 해도 브라운관 TV 점유율은 47.9%로 LCD TV 점유율(45.8%)을 2.1%p 앞섰으나 2008년 2/4분기 LCD TV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2009년 1/4분기에는 LCD TV가 61.8%, 브라운관 TV가 31.6%를 기록했다.

PDP TV는 2008년 1/4분기 이후 분기별로 6-7%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.

LCD TV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2/4분기 전체 TV 수요는 전기대비 3% 신장한 4455만2000대를 기록했다.

이에 시장 관계자는 “브라운관 TV의 비중 감소 부분을 LCD TV가 대체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0>